“팔만대장경 일부, 김천서 판각됐다”


해인사 장경각 대부모습.

최영호 동아대 교수, 7월 7일 한국학대회서 주장

국보 제32호 재조(再造) 고려대장경(이하 팔만대장경) 일부가 경북 김천 개령면에서도 판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호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7월 7일 직지사 설법전서 열린 ‘2016 한국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13세기 중엽 개령분사대장도감의 활동 인력과 조성 경판’을 통해 김천 개령면 일대에 분사도감이 설치돼 팔만대장경 일부가 판각됐음을 논증했다.

그간 학계는 팔만대장경 조성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대표적인 학설이 남해 지역에서 전부 판각됐다는 ‘남해 전담 판각설’과 강화와 남해 지역에서 나눠 판각됐다는 ‘강화도 · 남해 분담 판각설’이다. 이 같은 학설은 한국중세사, 서지학, 고고학에서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 교수는 두 학설에 맹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2000년대부터는 기존의 분사도감이나 산하에 설치된 별도의 조성공간 위치가 새롭게 진단되고 있으며, 경주와 가야산 등 삼남지역에서 판각공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최 교수는 “두 학설의 견해는 원처자료의 분석 방식과 해석 과정에서 객관성이 제한된 측면도 있다”면서 “강화경판에 담긴 의미를 최씨 무인정권이라는 정권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오해와 강화 · 남해라는 특정 지역 중심의 전유 기록유산으로 제한하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화경판의 조성 주체, 참여 각수의 출신성분, 조성 기구의 운영형태와 조성 배경 등에 대한 연구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작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개령분사대장도감 조성경판 주목
고려 고종 시기 〈당현시범〉 판각
개령분사도감 활동한 각수들 다수
분사 경판 조성… 개령 판각 논증

최 교수가 주목한 것은 해인사 소장 ‘당현시범(唐賢詩範)’이다. ‘당현시범’ 권하 11복(卜)에는 “고종 33년(1246) 개령분사대장도감에서 ‘당현시범’ 목판을 개판했다”는 간기가 새겨져 있다.

최 교수는 “‘당현시범’의 간기에 따라 현재 개령면 지역도 분사도감의 조성공간이 분산적으로 설치 ·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강화경판의 조성을 분담한 분사도감과 산하의 조성공간은 다양한 지역에 설치 ·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사도감에서 조성된 개별 경판의 외형적 형태가 다양한 점 △개별 경판의 조성기록 △분사도감 운영 당시 여러 지역에서 경판이 조성된 점을 들었다.

최 교수는 고종 38년 경주(옛 지명 동경) 지역에서 관리 박수가 주도해 〈불설아미타경〉을 새긴 것을 제시하며 “강화경판 조성사업이 일단락된 같은 9월보다 앞선 시기에 경주 지역에 〈불설아미타경〉 경판을 조성했다는 것은 이전부터 경판 조성에 필요한 인적 · 물적 기능이 갖춰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개령분사도감에서 판각된 ‘당현시범’에 참여한 각수들을 주목했다. 현재 확인된 각수는 감대 · 광려 · 천립 · 원간 · 손직 · 윤보 · 혜견 등 8명이다. 이들의 활동 상황을 분석한 최 교수는 “개령분사도감에서 제작된 경판은 ‘당현시범’만 확인돼지만 ‘당현시범’만을 위해 도감을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개령분사도감서 활동한 대부분의 각수들은 상호 교차적으로 연결돼 동일공간서 개별 경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미혼모 위한 한땀 한땀의 정성 서울 조계사는 7월 4일 대웅전서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와 ‘한부모가족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지현 스님은 협약식에 앞서 미혼모 가정 영아들에게 전달할 수면조끼를 직접 만들며 한 땀 한땀 정성스럽게 바느질 했다. 조계사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1차로 수면조끼 300개를 제작, 이를 미혼모 시설 등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수면조끼 제작과 함께 5000원을 보시하면 전액 미혼모 돕기에 사용된다. (02)861-3020 노덕현 기자

세월호 인양 염원하는 ‘가장 간절한 기도’

5대 종교, 7월 4일 ‘인양 촉구 기자회견’ 개최

5월 말 예정됐던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이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지연된 가운데, 한국 5대종교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천도교한울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태고종 충북노동인권위원회(이하 사회노동위 등)는 7월 4일 광화문 세월호광장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종교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7월 11일 세월호 선수들기 3차 시도를 앞두고 정부에 대해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사회노동위 등은 “이미 선수와 선미가 들려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야 할 세월호 인양작업이 벌써 3차례 연기됐다. 이 과정서 선체가 훼손되기도 했다”며 “유가족과 온 국민이 바라는 국가적 과제인 세월호 인양을 하루빨리 마쳐 침몰 원인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사회노동위원 우담 스님은 종교인 대표발언을 통해 “전국의 모든 스님들이 마음을 모아 오는 금~일요일(7월 8~9일) 온전한 세월호 인양을 염원하는 72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연다”며 “종교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노동위는 7월 8일 저녁 7시부터 세월호 선수들기 3차 작업이 실시되는 11일 오후 7시까지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 앞에서 ‘72시간 릴레이 3만 배 기도회’를 봉행했다. 박아름 기자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 7월 21일 10돌 맞아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 이하 생명나눔)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의 뜻을 전하는 법회를 봉행한다.

생명나눔은 7월 21일 오후 5시 30분 부산 코모도 호텔 1층 대연회장서 ‘우리가 걸어 온 길, 나아가야 할 10년을 위하여’란 주제로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 이사장), 경선 스님(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하사 회주) 및 이사 스님들과 기증회원 및 후원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다.

법회는 △인사말 △격려사 △축사 △회고 영상 시청 △시상식 △생명나눔실천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생명나눔은 “생명나눔의 중요성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1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세계인의 법왕’ 달라이 라마, 한국으로”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 7월 2일 백범기념관서 발대식



이날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는 13개 불교 신행 · 수행단체에 대해 소속 단체로 위촉했다.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공동대표 금강 · 진옥 · 박광서, 이하 추진회)는 7월 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 공식 발대식을 거행했다. 2013년 12월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 발족 후 2년 만이다.

이날 자리엔 조계종 원로의회장 밀운 스님, 추진회 상임대표 금강 스님, 공동대표 진옥 스님 · 박광서, 공동집행위원장 월호 스님, 배우 선우용녀 · 김혜옥 씨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했다.

밀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왜 달라이라마 존자를 한국에 모시고 싶은가’를 물으며 “나는 달라이 라마가 이 세상에 현존하는 유일한 부처님이라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불성은 있지만 모두 부처님은 아니다”며 “달라이 라마를 꼭 한국에 모셔 이 자리에 있는 불제자들의 불성이 모두 깨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추진회 상임대표 금강 스님은 “‘준비위원회’로 발족 후 조계종 원로회의 20여명 스님들에게 지지서명을 받은 것으로 시작, 정식 추진회로 거듭나는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달라이 라마 가르침의 요체는 평화와 자비 등 인류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방한이 꼭 성사돼 많은 갈등과 고통이 산재한 이 한반도에 평화와 자비 가치가 널리 펼쳐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아울러 이날 불교계 신행 · 수행단체 13곳을 추진회 소속 단체로 위촉했다. 해당 단체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국교사불자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동산반야대학, 대전광역시 청소년교화협의회, 세젠코리아, 심쉼풀이, 우리는선우, 절오빠절언니, 울산불교여성회, 울산금가회, 국제포교사회, 중앙포교사단, 승만서원실천회 등이다.

한편 발대식에선 달라이 라마 장수 기원 법회와 혜민 스님의 마음치유 콘서트 등도 함께 진행됐다. 박아름 기자

“신행은 願 세우고 실천하는 일”

조성택 교수, ‘신행운동’ 주제 포교원 종책연찬회서

“절실한 마음, 정직한 실천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願)이다. 나 스스로를 비롯해서 한국 출재가자들 가운데 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불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불교를 믿고 실천하는 신행이란 곧 원을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7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현시대의 불교신행운동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조계종 포교원 제68차 포교종책연찬회서 신행의 올바른 의미를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현황과 지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원의 세 가지 의미로 △현실을 바라보는 투명한 눈 △결핍과 부재, 상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 마음 △스스로 주체가 되는 마음을 꼽았다.

끝으로 조 교수는 “원에는 소모적인 이분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불자들 각자의 원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며 “과제는 원을 중심으로 한 신행이 한국불교의 사회적 · 문명적 리더십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제50차 성인 명상 템플스테이로 행복한 마음챙기기

화성 신흥사 어린이 명상템플스테이

■일 시 : 불기2560(2016)년 8월 20일 ~ 21일 (1박2일)
■대 상 : 고등학생 이상 일반인
■참가비 : 4만원
■준비물 : 세면도구, 흰티 등 ※템플복 준비되어 있습니다.

– 라훌라처럼 우리도 밀행제일 부처님 아들이 되자 –

화성 신흥사만의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무료



▶일 시_ 7. 29.(금) ~ 31.(일)
▶대 상_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
▶준비물_ 세면도구, 여분의 옷, 편한 운동화, 물놀이 신발
▶기념품_ 부처님 교화공원 합장주, 교화공원 손수건, 교화공원 기념티, 신흥사 리플렛, 수료증, 불교신문
※템플복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화공원 조성의 계기가 된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화성 신흥사는 40여년 전 어린이 포교를 시작으로 청소년, 성인들의 귀의처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쉽고 재미있게 전해 줄 수 있을까를 고심하다가 생각해 낸 것이 부처님교화공원입니다. 야생화 황톳길을 걸으며 명상을 통해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중생을 교화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며, 위대한 종교의 탄생과 교화공원에서의 장엄함 느낄 수 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무료(사중에서 지원)로 하는 것은 이 교화공원 조성의 계기가 된 어린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공덕을 회향 하고자 함입니다.

※주지 성일스님 및 모든 신흥사 자원봉사자는 어린이들이 곧 부처님이라는 마음으로 어린이 명상템플스테이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문의_ (031)357-2695, 3916
주소_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인터넷접수_ 템플스테이 검색 → 템플스테이 신청 → 화성 신흥사